



법률잡지의 산증인 「고시계」 창간 60주년

안녕하십니까. 한국잡지협회 회장 김기원입니다.
월간 「고시계」의 창간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월간 「고시계」는 1956년 어려운 경제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창간한 이래 60년간 행정부와 사법부의 핵심 동량을 키우는 데 일조하겠다는 신념으로 한국 법치주의 창달에 이바지해왔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대표 법률 잡지로서 견인차 역할을 해 오신 선배 발행인들과 현 정상훈 발행인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커다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경기 침체와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 대부분의 잡지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월간 「고시계」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독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읽고 한발 앞서 나가는 전략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고시계」는 사회적 법률이슈를 다루고 법률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특별기획 기사 및 수험자료 등 깊이 있는 분석 기사를 통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법률 전문 잡지로써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사법시험의 존치 여부를 두고 수년간 국회, 정부, 대학 등에서 논의만 하고 있어 사회 각 계각층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법시험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공정한 제도로서 '기회균등의 공정사회 가치 구현'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은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 가운데, 로스쿨의 장점은 살리면서 공평하고 공정한 기회를 열어주는 사회와 '개천에서 용이 나는 제도'로서 법조인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사법시험을 적절히 존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 제4세대 잡지협회 회장
- 스포츠미디어, (주)스포츠피플 대표
- 월간 배드민턴, 테니스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



김기원

최근 국가고시 시스템의 많은 변화로 '고시계사'에서도 새로운 혁신을 단행한 것으로 압니다. 지난 60년간 수험생들로부터 크나큰 신뢰를 받아온 '고시계사'는 변화하는 수험트렌드에 맞춰 '법무경영교육원'을 개설하고 '고시계사', '에듀올' 웹사이트를 확대 개편하는 등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법률콘텐츠뿐 아니라 고시계사 부설 '법무경영교육원'에서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디지털포렌식, 외교아카데미 등 고급 국가인재등용시험에 필요한 자격시험 및 직무교육 등 양질의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고급정보의 제공은 물론 차별화된 전문교육 콘텐츠를 통해 독자와 소통하고 가치를 제공하는 전문지로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월간『고시계』의 환갑인 창간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